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④	5	⑤
6	⑤	7	⑤	8	④	9	①	10	③
11	②	12	④	13	①	14	②	15	②
16	③	17	⑤	18	③	19	②	20	④
21	①	22	③	23	②	24	⑤	25	②
26	③	27	⑤	28	①	29	④	30	③
31	④	32	⑤	33	⑤	34	③		

해설

※ 독서 이론 ※

□ 출전: 최효찬,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글자와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부분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며 이것이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라고 보았다.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어야 글자와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이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의 토대가 되므로, 글 전체의 의미를 파악한 후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 가며 읽어야 한다는 것은 이황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독서의 목적을 인격 수양이나 자기 완성에 두었다. ② 5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함께 읽기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글자와 구절의 뜻을 살피며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이 글쓴이와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고 보았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을 넘어 토론을 겸하는 함께 읽기가 책의 내용을 정밀하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독서법이라고 보았다.

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책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함을 강조하며 책을 급하게 읽어 버리는 졸독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독서 태도가 요약본을 읽지 말라고 조언한 것과 상통한다는 것으로 볼 때, 조언의 이유를 요약본을 읽는 것이 원래의 책을 급하게 읽어 버리는 것과 같아 책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사리에 적용하기

4문단에 따르면, 입을 통한 읽기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이며, 이황은 눈으로 읽는 것뿐 아니라 손과 입을 통한 읽기도 중시하였다. 이를 통해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역람은 책을 거쳐 가듯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이황은 이러한 읽기로는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은 책을 대강 훑어보기만 해서 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책을 자세히 읽어 본다는 것이므로, 역람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읽기 어려운 책을 자녀들이 깊이 이해하도록 책의 어려운 문장을 배껴 것을 강조하였다. ⑥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들을 옮겨 적으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려 하는 것이므로, 이황이 자녀들에게 강조한 독서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중요해 보이는 글자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해 그것이 글의 핵심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글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은 부분에 가려 전체를 읽는 것이라고 보았다. ⑧은 '개인의 자유 존중'이라는 말이 중요해 보여 관련 내용에 주목해 이 말에 글의 핵심인 책의 주제가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해 글의 본질인 글쓴이가 말하려는 바를 따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므로, 특정 부분을 글의 핵심이라고 보는 선입견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5문단에 따르면, 이황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함께 읽기를 통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을 깨우치고 학문과 덕을 닦을 수 있는 것을 인접해 있는 두 못물이 서로를 불어내게 하여 유익하게 되는 상황에 비유하였다. ⑨는 책을 읽고 친구와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 후, 친구와 함께 글쓴이가 전하려는 주제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므로 두 못물이 불어나 유익하게 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 주제 통합 ※

□ 출전: (가) 홍정수 외, 「음악미학」
(나) 오희수, 「음악 속의 철학」

4.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는 환기론과 인지론의 논의를 중심으로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음악이 감정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지녔다고 보는 인지론의 입장과 음악이 청자에게 다양한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고 보는 환기론의 입장을 절충한 상상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① (가)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시대 순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는 음악이 감정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있지만 음악이 갖는 가치를 특정 시대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철학자 키비와 매트러버스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지만 시대별 음악관이 달라진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환기론, 인지론, 상상 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만 상상 이론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청자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음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 이전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음악이 주는 감정적 흥분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 음악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바로크 시대에는 청자들의 감상이 '가슴에 호소되는 바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바로크 시대를 지나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작곡가가 '자신의 개성이나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바로크 시대 이전에 작곡

가의 개성과 독창성에 기초한 창작 활동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바로크 시대의 감정은 '일반적이고 객관화된 감정'이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낭만주의 시대의 감정은 '작곡가의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바로크 시대와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게 감정의 의미가 서로 달랐다고 볼 수 있다.

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음악이 청자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는 환기론은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실제로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론은 음악이 청자의 감정과는 무관하며 청자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음악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적 변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은 무생물인 '음악'이 '슬프다'라는 술어의 주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에 대한 분석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인지적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지론을 비판하는 환기론의 입장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음악을 듣는 청자 개인의 가변적인 주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환기론을 비판하는 인지론의 입장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두 입장 모두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출제의도] 구체적 사리에 적용하기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로빈슨은 상상 이론에서 작곡가에 의해 리듬의 움직임에 감정의 흐름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경험한 페르소나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청자가 그 감정을 인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로빈슨은 ㉠의 '리듬에 따라 내 감정도 바뀌고 있다'에서 감정의 주체를 작곡가가 아닌 페르소나와 청자로 볼 것이며, 감정의 주체가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볼 것이다.

① ㉠의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감정을 느낀 것을, 매트러버스는 음악을 들으며 청자가 즉각적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다. ② ㉠의 '슬프다'를, 키비는 음악이 슬픔에 대한 표현적 속성을 소유하고 있어 청자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지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여길 것이다. ③ ㉠의 '서러움으로 다가왔다'를, 매트러버스는 청자가 음악을 들으며 서러움의 감정을 느꼈다면 음악이 청자에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볼 것이다. ④ ㉠에서 '작곡가가 불협화음을 통해 구현하려고 했던 슬픔'은 작곡가에 의해 구현된 감정이며, 로빈슨에 의하면 이 감정의 흐름을 작품 속 페르소나가 경험한다. 그런데 이 학생은 '오히려 나는 경쾌함을 느꼈다'고 하였으므로, 로빈슨은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의 감정과 불일치한 것으로 볼 것이다.

8. [출제의도] 다른 견해와 비교하기

헤강은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음악의 형식적 요소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 키비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헤강은 음악을 통해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여긴 기존의 음악론에 반대하였으므로,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 중세의 음악관에 반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헤강은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고정된 대응 관계로 파악한 기존의 음악론을 비판하였으므로, 음악과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음악과 감정을 대응하려 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들을 비판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해강은 감정이 내재되어 있는 음악이 도덕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고 여긴 기존의 음악론에 반대하였으므로, 음악이 인간의 도덕적 성향인 에토스에 영향을 미쳐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입장과 부경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해강은 음악을 들으며 청자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음악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발출되는 것이라 보았으므로, 청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한 매트러버스의 입장에 수긍할 것임을 알 수 있다.

9. [출제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의 의미이므로 ㉠과 바귀 쓰기에 적절하다.

② ㉡의 ‘느끼다’는 ‘마음속으로 어떤 감정 따위를 체험하고 맛보다.’의 의미로, ‘사라지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자세히 살펴 찾다.’의 의미인 ‘탐색하다’와 바귀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의 ‘담아내다’는 ‘글, 말 따위에 어떤 내용을 나타내다.’의 의미로,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다.’의 의미인 ‘도출하다’와 바귀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의 ‘생기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로,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가 이루어져 세워지다.’의 의미인 ‘수립하다’와 바귀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의 ‘지나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의미로, ‘사물이 생겨나다.’의 의미인 ‘생성하다’와 바귀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사회 ****

□ 출전 : 이준구, 「재정학」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 따르면,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면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과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조세 납부의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에 따르면,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과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으며, 정부는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조세 귀착을 고려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조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조세로 인한 가격 변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부과된 조세 액수만큼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흔히 어떤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모두 지는 것으로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A]에 따르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료가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보다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든다.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고 할 때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든 재화를 선택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갑국의 정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과 ㉡ 중,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적게 줄어든 ㉡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A]에 따르면, 가격 탄력성이

크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며 수요와 공급 중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보기>에서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다고 하였으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으며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 따르면,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낮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낮은 금액을 갖게 되며 수요자는 균형 가격에 세금을 더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빵 한 개당 200원의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어 수요자에게 200원의 법적 귀착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수요 곡선이 D₁에서 D₂로 이동한 것은 물품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균형 가격이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게 되면서 새로운 균형 가격이 기존보다 낮은 920원에 형성되고 공급자는 1,000원보다 80원이 낮은 920원을 갖게 되므로(㉢), 공급자에게 80원만큼의 조세 부담이 전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 형성된 균형 가격인 920원에 수요자는 조세 200원을 더해 빵 한 개당 1,120원의 값을 지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③은 ‘값이나 수치, 온도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의 의미이므로 ‘작년보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의 ‘오르다’의 의미와 유사하다. ②에서 ‘오르다’는 ‘식탁, 도마 따위에 놓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에서 ‘오르다’는 ‘기록에 적히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에서 ‘오르다’는 ‘탈것에 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에서 ‘오르다’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 과학 ****

□ 출전 : Benjamin Lewin 외, 「세포학」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5문단에서 세포자멸사를 활용하여 질병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질병 치료 분야의 세포자멸사 연구의 성과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① 1문단에서 피사는 ‘세포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이나, 세포자멸사는 피사와 달리 ‘능동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세포자멸사와 피사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DNA가 자외선 노출로 인해 손상되거나 세포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등’이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세포독성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자멸사하게 하여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피해자가 일어난 이후 세포의 ‘포스파티딜세린’이 바깥쪽으로 노출’되고 ‘이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인해 주변의 식세포들이 자멸사한 세포’를 ‘포식’하여 세포가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 따르면, DNA의 사다리 모양은 자멸사한 세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세포의 DNA 모양을 관찰했을 때 사다리 모양이 나타난다면, 이 세포는 실행 카스파제에 의해 DNA가 절단된 것이므로 자멸사한 세포이다. 반대로 죽은 세포의 DNA 모양을 관찰했을 때 사다리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포는 실행 카스파제에 의해 DNA가 절단된 것이 아니므로 자멸사한 세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4문단의 내용을 통해 죽은 세포의 DNA 모양을 관찰하면 세포의 자멸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다.

① 2문단에 따르면, ‘세포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Bcl-2 단백질의 농도 감소와 미토콘드리아의 막 파괴가 일어나 카스파제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세포에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카스파제의 활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5문단에 따르면, ‘비정상적 세포가 제때 제거’되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된다. 따라서 비정상적 세포가 자멸사하여 제거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2개의 층이 뒤섞이면 ‘포스포티딜세린’이 바깥쪽으로 노출’되어 식세포의 포식이 일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만약 피사한 세포의 세포막이 뒤섞인다면 주변의 식세포에 의해 포식되어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사한 세포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피사한 세포의 세포막이 뒤섞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자멸사한 세포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새어나오기 전에 포식으로 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멸사한 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해 세포막이 구멍이 생기기는 하지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새어나오기 전에 처리된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멸사한 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에 의해 생긴 구멍을 통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보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 파악하기

㉠과 ㉡에서는 모두 실행 카스파제가 DNA를 절단하여 붕괴시킨다. ㉠에서는 실행 카스파제가 카스파제-9에 의해 활성화되며, 이 카스파제-9는 미토콘드리아의 파괴된 막을 통해 방출된 물질들로 인해 활성화된다. 따라서 ㉠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이 방출되어야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에서는 실행 카스파제가 세포독성 T세포가 유입시킨 과립효소 B에 의해 활성화되고, 이렇게 활성화된 실행 카스파제가 DNA를 붕괴시킨다. 따라서 ㉡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물질이 방출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

① ㉠에서는 세포 내 단백질인 Bcl-2 단백질과 DNA 간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 ㉠과 ㉡에서는 모두 세포 내부의 효소인 실행 카스파제가 DNA를 절단한다. ④ ㉡에서는 DNA를 붕괴시키는 효소인 실행 카스파제가 카스파제-9가 아닌 과립효소 B에 의해 활성화된다. ⑤ ㉡은 세포독성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비정상’, 즉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시작된다. 그러나 ㉠은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시작된다.

17.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다)에서 실행 카스파제에 속하는 카스파제-3의 활성이 증가한 것은 세포자멸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처리 후 48시간이 지나자 Bcl-2의 발현량이 감소하였는데,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는 Bcl-2의 발현량이 감소하면 세포자멸사가 일어나므로 세포자멸사가 증가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에서 A를 중앙 세포 집단에 처리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세포자멸사가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 따르면,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지는 것은 신체 내 조직에서 불필요한 세포를 없애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가)에서 신경 세포는 필요한 것보다 많이 만들어지고, 이후 다른 신경 세

포와 연결되지 않은 세포들은 제거된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신경 세포와 연결되지 않은 세포들이 신체 내 조직에서 불필요해 제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가)에서 신경 세포는 울챙이의 꼬리가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멸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세포의 DNA가 자외선 노출로 인해 손상되는 것은 더 이상 세포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볼 수 있다. (나)에서 각질 형성 세포들은 과도한 자외선이 조사되어 DNA 염기 구조가 변화하는 DNA 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 각질 형성 세포들은 DNA가 자외선 노출로 인해 손상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자멸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5문단에 따르면, 최근에 세포자멸사를 활용하여 악성 종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치료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에서 A는 비정상적 세포인 종양 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세포로 인한 질병 치료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포자멸사가 적절히 일어나야 한다. (가)에서 일어나는 신경 세포의 세포자멸사는 뇌의 구조가 갖춰지게 하고 뇌가 원활히 기능하게 한다. (나)에서 일어나는 DNA가 변이된 세포의 세포자멸사는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세포자멸사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 (가) 이신의, 「단가육장」
(나) 조위, 「만분가」
(다) 이침, 「원수」

1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나)는 '천 중 파도 한가운데 백 척 장대에 올랐다니', '억만 길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에서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대로운 상황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가)는 <제3장>에서 '세우', <제6장>에서 '설월', '배화'라는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삶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역사적 인물을 호명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나)는 '공자'라는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B]의 '뜰 가'에 '제비 비비'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 거위하'는 것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환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① [A]의 '남산에 맑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 난 후 부근이 그다지도 날랭고'에서 '부근'이 '맑던 술'을 사라지게 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부근'에 의해 사라진 '술'을 '우로'가 '값으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므로, '우로'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③ [C]의 '설월에 매화를 보러 잔을 잡고 창을 여니 / 쉬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에서 추운 '설월'의 상황에도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그러나 매화의 향기를 알지 못하는 '호집'에 대한 예찬은 드러내지 않는다. ④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난 후'의 상황은 '남산에 맑던 술이 사라진 상황'으로, [B]의 끝이 없는 '격벽의 회포'와 연결되어 한탄의 정서가 드러나지만,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내지 않는다. ⑤ [B]에서 '창밖'의 '세우'를 보는 상황과 [C]의 '창'을 열어 매화의 '향기'를 맡는 상황에는 현실을 회피하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③은 '지하 북풍'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화자의 운명과 그에 대한 마음을 물음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절망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결심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①은 화자가 추구하는 '효제충신'이라는 삶의 가치를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② ②은 '초췌한 이 얼굴'에서 수척해진 화자의 모습을, '입 그리 이리한가'에서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상황을 물음의 형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입을 향한 그리움에 수척해진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물음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③은 입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 소매'를 눈물로 적시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인과 재회하지 못해 비통해지는 화자의 심정을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⑤ 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물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시각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생각을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2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1문단의 '사람들이 다 반춘·동백·곤륜·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것이 이 배 산에 달하기 전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사람이 물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둠다.'라는 부분을 통해, 강·화·하·한 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물의 정결은 아래로 스며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물의 정결은 확인할 수 있지만, 물이 근원에 도달하는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2문단의 '그 흐르는 것이 방울방울 끊어지지 않아 줄달아 잇달다가 장강에 통하고, 큰 바다에 달하여는 호호하고 패연히 넓고 넓어 왕각닥쳐 어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를 통해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의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바로잡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제시된 하동에서 '작은 샘'과 관련하여 겪은 경험은 사람이 쓰이는 이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이 쓰이는 이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5문단에서 '물을 보는 데는 방울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라.'라는 '맹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물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달'을 보고 '예전에 보던 낫빛인 듯'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그리운 임의 모습을 '달'에 빗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화자가 입을 위해 '백옥 같은'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자신의 결백함을 표현한 것이고, '무서리'가 '쉬어 치고' '억만 길 못에 빠'졌다는 것은 유배된 화자의 경험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관리들의 사회인 '환해'에 '뫼뫼의 회오리바람'이 내린 것은 화자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겪게 된 부정적인 현실을 자연물의 속성과 연관 지어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글쓴이는 '냉정과 수맥이 같은' '작은 샘'을 자신의 '이웃'들이 '더럽게 여기고' '먹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부분을 '사람이 세상에 쓰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도 이와 비슷함이 있다'고 연결 지었으므로, 이를 통해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뫼뫼'가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고, 그 마음의 곡직에는 근본하지 않

으니, 또한 물이 흐르는 것만 알고 그 근원은 알지 못함과 같다'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시 ****

□ 출전 : (가) 김기림, 「금붕어」
(나) 정희성, 「길」

2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어항 속에 갇힌 상황과 바다에서의 자유로운 상황을 대비하여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법관이 되거나 돈을 잘 버는 상황과, 궁터를 벗지 못했지만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을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가)와 (나) 모두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나)는 '어렵구나'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지만, (가)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③ (가)는 '금붕어'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④ (나)는 '내 사람아'라고 특정 대상을 부르고 있지만, (가)는 특정 대상을 부르는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⑤ (나)는 명령형 어미 '-아라'를 사용하여 '내 사람'이 하늘을 보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가)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다.

24.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5연에서 금붕어가 '한류를 끊고 해염치 가'고 싶다는 것은 어항을 벗어난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것이다. 6연에서 '배설물의 칠전처럼' '연령만 쌓여간다'는 것은 금붕어가 어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5연에서 '한류를 끊고 해염치 가'기 위해 6연에서 '배설물의 칠전처럼' '연령만 쌓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1연에서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는 것은 금붕어의 외양이 변했음을 드러내며 '화장한 따님'은 이러한 금붕어를 비유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어느새'를 '화장한 따님'과 연결하여 금붕어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1연에서 금붕어가 '어항 밖 대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한 것은 어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준다. 3연에서 금붕어의 '지느러미가'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는 것은 금붕어가 어항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1연에서 '오를래야 오를 수 없다'는 금붕어의 생각이 3연에서 '지느러미가'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4연에서 금붕어는 '붉은 바다'를 보고, '꿈이라 가르켜진 / 그 바다'를 넓다고 생각하고 있다. 5연에서는 그 바다에서 '검푸른 비늘을 입고' '해염치는 자유로운 상황을 상상한다. 그러므로 4연에서 '붉은 바다'에 대해 금붕어가 떠올린 생각이 5연에서 '검푸른 비늘을 입고'는 상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가)에는 금붕어가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는 어항 속에서 'hun'이 주는 먹이를 먹으며 현재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어항'은 현재 모습이 안온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나)에는 가난한 사람이 마음 편하게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람'은 자신이 지향

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화자를 흐느리는 유혹으로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화자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과 달리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화자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없다.

① (가)에서 금붕어가 '아담하게 / 꼬리를 짓고 돌아'서서 '유리벽'에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다'는 것은 어항 속에서 살아가는 금붕어가 '유리벽'이 '국경'임을 느껴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② (가)에서 어항에 갇힌 금붕어가 바다에서 '해초의 산림속'을 다니고 '쏟 매개'를 '삼키고 싶'어한 것은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것이다. ④ (나)에서 화자는 '법관이 되'거나 '돈을 잘' 버는 삶이 아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궁티'를 벗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화자가 '한 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⑤ (가)의 '꿈을 오프라 /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은 금붕어가 바다로 향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나)의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다'는 것은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윤지경전」

2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윤지경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여러 사람의 반응과 사라진 윤지경을 찾는 과정이 '이러구러 여러 ~ 수십 일이라.'와 '조정에서는 윤지경이 ~ 이때는 유월이라.'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일시도 떠나지 아니하더라', '찾지 못한 지 수십 일이라' 등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으나 이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인물 간 대화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부마를 잃은 ~ 불러오라 하시나이다.', '부마께서 용주를 ~ 문죄하러 하시더이다.'를 통해, 환관 김송환이 윤지경에게 임금의 명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윤지경의 들뜬한 태도에 당황해하는 환관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에시당초 회안군이 ~ 게 아니오?'를 통해, 윤지경은 회안군이 자신에게 혼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부마로 천거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토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식구들을 모두 피해 왔으니, 종이 오거든 미리 일러 내가 피할 수 있게 해라'를 통해, 윤지경이 하인에게 자신을 찾는 사람이 오면 미리 일러 달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윤 공이 ~ 처소에 있는지라.'를 통해, 윤 공이 최 씨의 처소에 윤지경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하인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내가 어린 나이에 장원 급제를 하더니 세상에 헛된 뜻이 생겨서, 용주 정도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냐?'를 통해, 임금은 윤지경이 세상에 허황된 욕심이 생겨서 용주의 지위 정도로는 마음에 차지 않자 용주와의 혼인을 거절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대화의 특징 파악하기

[A]는 동생인 회안군을 욕하고 자신을 능멸한 윤지경의 언행을 임금이 직접적으로 꾸짖고 있다. [B]는 윤지경이 '신하 제 ~ 잡혀 들어왔느냐.'라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임금에게 가지 않았다는 뜻을 전함으로써 상대방의 요구를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전하께서 보위에 ~ 심산궁곡에 미쳤거늘'을 통해 임금의 성덕이 자신을 제외한 백성들에게 미쳤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애정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인 최 씨와의 신의를 중시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임금과 윤지경이 서로 의견이 달라 언쟁하는 것에서 논쟁적 재미가 드러나며, 이런 점에서 기존 애정 소설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정에 신하의 자식들이 많은데 최 씨와 혼인한 윤지경을 구태어 부마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에서 강압적인 왕권의 모습이 드러난다. 임금이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니' 밝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삼년 만에 부인을 다시 만난 윤지경이 최 씨와 함께 있기 위해 한 달 가까이 문안에 붙잡혔다는 것에서, 부마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애정을 성취하는 주제적인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박완서, 「낙도의 아이들」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의 생활 ~ 없게 했다.', '아무튼 난 ~ 불안해하고 있었다.' 등에서 '나'의 내면을 진술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딸애의 반은' '작년 연말 이웃 돕기 모금' 때 이등을 했고, 올해 '수해 의연금 모금'에서 일등을 했으므로 모금 실적이 우수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장 선생님'은 '모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교내에서 반가리 경쟁을 붙이는' 방법을 강구해 냈지만, 딸을 학교 대표로 세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딸을 학교 대표로 세우려는 교장 선생님의 노력으로 인해 딸의 반이 작년보다 모금 실적이 우수해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무릉국민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낙엽을 한꺼번에 깨끗이 떨구게' 해서 '나무이 된' '나무들'을 보고, '그런 유이 ~ 얼마나 끔찍할까'를 '자못 심각하게 회의'하는 모습을 통해 '나'가 교장 선생님의 교육적 신념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교장 선생님은 모금 실적이 가장 우수한 반의 반장과 부반장에게 학교를 대표해서 신문사에 성금을 전달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아내가 '다시 수해'가 나서 딸이 '수제민 돕기를 할 수 있기를 조금스럽게 별렀다'는 것을 통해 아내는 부반장인 딸이 학교를 대표해서 성금을 신문에 전달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가 증권 회사 건물에 보고 '아내가 건물과도 인연을 맺을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번번이 압도당'한다고 진술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나'는 '타협적이면서도 꺾보는 듯'한 무릉동 주민들의 표정을, '남을 꺾으면서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아내의 개성'과 연관 지으며 무릉동 주민을 '한 사람도 낯설'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분재의 나무'는 무릉동의 어른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해서 마치 '작은 어른'인 것처럼 보이는 무릉동 아이들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잘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으로 함부로 남을 꺾으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이중성'이라는 '무릉동 주민 누구나의 특성'을 아이들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속성인 광택'을 지닌 '증권 회사 건물'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릉동 주민과 관련이 있으므로, '성장을 억제해서 키운 분재의 나무'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망이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① '교장 선생님'이 추구하는 '완벽한 질서'는 '낙엽을 한꺼번에 떨구는 부자연'을 의미하므로, '분재의 나무'와 모순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④ '이 거리의 아이들', 즉 무릉동의 아이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재의 나무'가 '이중성'을 약화시키는 소재는 아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가 '별안간 내 얼굴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릉동 주민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므로, 물질의 편안함이 주는 일상에 안주하는 태도는 확인할 수 없다.

① '모금 실적'을 ~ '모안을 강구해' 내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서, 과도한 경쟁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아내와 딸애'는 '여름이 와서 다시 수해'가 나서 '수제민 돕기를' 하여 학급 대표로 신문사에 성금을 전달하러 가는 '소원이 성취' 되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타인의 불행에 이용하려는 비인간적인 가치관을 지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무릉동 주민들이 '잘사는 사람다운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꺾는' 것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불쾌감'은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발가벗긴 나무들을 바라볼 적마다 정서의 불모지대를 보는 듯해서 느끼는 감정'이다. '내 아이들이야말로 낙엽을 한꺼번에 떨구는 부자연을 강요당하고 있는 어린 낙목 같은 생각이 들면서'라는 진술을 통해 '발가벗긴 나무'는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발가벗긴 나무인 '낙목'을 만드는 것과 같은 '완벽한 질서'를 위해 행해지는 '그런 유이'를 무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까'를 '심각하게 회의'한다. 이를 통해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에 대해 '나'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③	36	⑤	37	①	38	③	39	③
40	②	41	⑤	42	②	43	①	44	④
45	④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중성 표기 특징 파악하기

㉠에서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바뀐 대로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으로, 중성 표기를 여덟 자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중성에서 'ㄱ, ㅅ, ㅈ, ㅊ, ㅋ, ㆁ'의 여덟 자만 소리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성에 오는 자음은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로 소리 났음을 알 수 있다.

① 중성에서 'ㄹ'을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ㄹ'은 중성에서 소리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세 국어에서는 중성에서 'ㄹ'과 'ㄹ'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았다. ② 중성에서 'ㄷ'과 'ㅅ'이 각각 표기된 것으로 보아 발음상의 구별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어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중성에 여덟 자의 자음을 표기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여덟 자 이외의 자음을 중성에 표기할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므로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 이는 환경에 따라 바뀐 모습을 바뀐 대로 적어 표기에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표기법 이해하기

'ㄹ'의 중성 'ㄹ'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힌 여덟 개의 자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경에 따라 바뀐 모습을 바뀐 대로 적지 않은 ㉠에 해당한다. '손'으로'는 불경불탁의 자음인 'ㄴ'으로 끝난 체언 '손'에 조사 '으'가 와서 끊어 적기가 나타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님금미'는 'ㄹ'으로 끝난 체언 '님금'의 말음 'ㄹ'을 뒤에 이어 오는 조사 '이'의 초성에도 다시 적는 거듭 적기가 나타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① '맛'고는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인 'ㅅ'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아'는 용언 어간인 'ㄴ'으로 끝난 경우 끊어 적기가 된 예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답아'는 용언 어간인 'ㄷ'으로 끝난 경우 끊어 적기가 된 예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발'은 여덟 개의 자음 중 하나인 'ㄷ'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뽕안해'는 ㅎ중성 체언 '안ㅎ'의 중성 'ㅎ'이 조사 '에'에 이어 적기가 된 경우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사라'는 용언 어간 '살'의 받침인 'ㄹ'을 뒤에 이어 오는 어미 '아'의 초성에 적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나타난 것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 파악하기

'할계'의 경우 어간 '하'에 'ㄹ'로 시작되는 어미 'ㄹ'이 붙어 [할계]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27항의 [붙임]에 해당한다.

38. [출제의도] 문법 요소와 문장의 짜임 파악하기

㉠은 '값음'의 '-았-'과 '들었다'의 '-었-'을 통해 과거 시제가 나타나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아침에 수영장에 갔음'이라는 명사절이 문장 안에 안겨 있으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할머니를 모시고'에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인 '모시고'가 사용되어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와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② '나오셨습니까'의 '-었-'을 통해 과거 시제가 나타나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와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④ '비가 그치기'라는 명사절이 문장 안에 안겨 있으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와 ㉠은 실현되지 않았다. ⑤ '값습니까'의 '-았-'을 통해 과거 시제가 나타나므로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께 식사를 차려 드리고'에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인 '께'와 '드리고'가 사용되어 ㉠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은 실현되지 않았다.

39. [출제의도] 담화의 언어적 맥락 파악하기

㉠이 가리키는 대상은 승준, 아영, 민찬, 서우로 ㉠이 가리키는 대상인 서우를 포함한다. ①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②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이 가리키는 시간대보다 앞선다. ④ ㉠이 가리키는 대상은 승준, 아영, 민찬, 서우이고, ㉠이 가리키는 대상은 민찬, 승준이다. ⑤ ㉠이 가리키는 대상은 승준, 아영, 민찬으로 <보기>의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지만, ㉠이 가리키는 대상은 민찬, 승준으로 <보기>의 담화 참여자 중 아영이 빠져 있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전달 방식 파악하기

(가)에서는 본방송을 중단부터 시청한 수용자를 위해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① '전문가'의 세 번째 발화 중 '지금 ~ 사진입니다.'에서 방송 내용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화면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여섯 번째 발화 '실시간 댓글로 ~ 하셨습니다.'에서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네 번째 발화 중 '지난 시간에 ~ 마찬가지로입니다.'에서 방송 내용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난주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방송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아홉 번째 발화 중 '방송 시청 후 ~ 남겨 두겠습니다.'에서 방송 내용이 수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용 태도 파악하기

'냇달'의 '방송 후에 ~ 켜졌더라고요.'에서 방송 후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추가 탐색 활동을 진행해 정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기에 ~ 생각해요.'에서 방송 내용이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의 요구에 알맞은 성질'을 뜻하는 시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미소'의 '전 학생이어서 ~ 정보이군요.'에서 방송 내용에 관한 자신의 경험에 주목하며 방송 내용이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③ '셋별'의 '전통적 방식의 ~ 기반으로 한 거죠?'라는 것에서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의 출처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 믿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에서 방송 내용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 제작의 적절성 파악하기

㉠에서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의 장점을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제시하고 있으나, 전통적 방식의 기부와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의 차이를 비교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① ㉠에서는, (가)에서 전문가가 모금함을 통한 기부와 ARS를 통한 기부는 좋고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는 늘었다고 기부 방식의 변화를 언급한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해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④ ㉠에서는, (가)의 '참여형 켈린지는 ~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라는 전문가가 언급한 참여형 켈린지에 대한 비판 내용을 바탕으로 '단, 단순히 ~ 주의하기.'라는 기부 참여 시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에서는, (가)의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손길'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여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달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이해하기

㉠에 사용된 '-습니까'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진행자는 종결 어미 '-습니까'를 사용하여 뉴 미디어를 통한 기부 중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부터 설명해 줄 것을 물음의 방식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 ② ㉠에 사용된 '-면'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이다. 전문가는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금 적립의 조건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③ ㉠에 사용된 '나'는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전문가는 보조사 '나'를 사용하여 '런 켈린지'가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한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에 사용된 '어떤'은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관형사이다. 진행자는 관형사 '어떤'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⑤ ㉠에 사용된 '역시'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과 같음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전문가는 부사 '역시'를 사용하여, 앱을 통한 기부의 장점이 누리 소통망을 통한 기부의 장점과 같음을 나타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나)에서 은지는 '첫 페이지에도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태영의 제안에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그린 그림을 공유했을 뿐, 다른 참가자에게 이전 회의의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③ 태영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의 '누리 소통망 화면'을 사재로 보여 주며 '첫 페이지에도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⑤ 가희는 채팅 창에 '사진 강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자는 자신의 제안과 관련된 정보인 누리집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파악하기

(나)에서 한나가 '인화된 사진은 참가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니까 꼭 안내해'라고 한 것을 바탕으로 (가)의 '게시물 페이지 4'에 참가자에게 사진을 인화하여 제공한다는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은지가 그린 '카메라를 든 여행객' 그림을 (가)의 '게시물 페이지 1'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므로, '게시물 페이지 1'에 여행지 사진을 추가한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 '게시물 페이지 2'의 그림을 삭제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은지가 '여행 코스를 안내할 때 여행지 사진도 제시'하자고 제안하였으므로 (가)의 '게시물 페이지 3'에 여행지를 설명하는 글을 추가한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⑤ 성범이 '사진 강의보다 여행 코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자고 제안하였으므로 (가)의 '게시물 페이지 2'와 '게시물 페이지 3'의 순서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